

노량진(오전)	6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주일에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에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7월 3일 (제1156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에 적극적인 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우신다!”

평화통일 기도성회가 열린 22일에 내가 전국의 교역자와 성도들에게 보낸 메시지다. 제11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무사히, 성황리에 마친 지금, 나는 분명히 우리 교단의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축복해주실 것이며, 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리라 확신한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평화통일 기도성회가 성공리에 끝났다. 이는 우리가 집회에서든 시인했듯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후원하셨기 때문이다. 더불어 교단의 주의 종들이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했기 때문이며,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일이다.’라며 발 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황금률(黃金律)이 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선지자니라”(마7:12)는 말씀이다. 황금과도 같은 만고 불변의 소중한 진리라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대로 우리에게 대접하신다.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제11차 평화통일 기도성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 생명보다 귀하다는 물질을 드리고, 현장에 나와 봉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축복과 은총과 사랑과 평강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것이다.

제11차 평화통일 기도성회

“지금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후원하고 예수중심교단이 주최하는 제11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김종일 장로의 선포로 시작된 제11차 평화통일 기도성회!

그저 놀랍고 감사할 뿐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대작이요, 명작이었다. 마침내 6.25 발발 72주년을 며칠 앞둔 6월 22일, 우리는 또 하나의 역사를 썼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통일을 갈망하는 성도들로 가득 했다. 먼저 태극기와 교단기가 총회장 목사님께 전달되고, ‘아름다운 이 강산에’ 찬양과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모두가 숙연해졌다. 이어 이시대 목사님이 나오셔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평화통일을 얼마나 갈망하고 소원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소망의 열도와 응답은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모처럼 찾아온 친구에게 대접할 떡이 없자 다른 친구를 찾아가 문을 계속 두드리며 떡을 구하니 친구가 나와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찌라도 그 강령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눅11:8)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화통일을 주소서!’라고 계속 강령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통치권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딤후2:2)고 했습니다. 역사를 고찰

이상해. 이리다 전쟁 나면 어떡해.’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한 것이 헛되고 맙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3-24)고 하셨습니다. 의심치 않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도 가능한데 평화통일이 왜 안 이뤄지겠습니까? 셋째, 우리가 대동단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어야 남북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야가, 노사가, 교회가 하나 될 때 이 나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제11차 평화통일 기도성회(2022년 6월 22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함심기도를 인도해주셨고, 아흔이 넘으신 권천국 목사님이 등단하여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셨다. 모두 태극기를 높이 들며 만세 삼창을 했다. 몽글했다.

총회장 목사님은 ‘소망의 열도와 응답은 정비례한다’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셨다.

“우리는 지난 2013년부터 10차에 걸쳐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서울시청광장에서,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부천, 대구, 잠실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오늘까지 11차에 걸쳐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하는

해보면, 전쟁은 민족 전체적인 감정보다는 통치권자, 집권자들의 개인적인 통치 철학에 의해 일어난 사례가 부지기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히틀러나 스탈린, 후세인, 김일성, 푸틴 등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통치권자들이 건전한 사고를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딤후2:2)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기도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통일을 주세요.’라고 실컷 기도해놓고 ‘요즘 북한이

것 같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싸우면 공멸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평화통일은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기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일을 합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은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지금 우리의 희생과 기도가 이 나라에 평화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 나라에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유다. 신묘수 전도사



교단의 모든 역량이 결집된 평화통일 기도성회



태극기 전달식



우리는 평화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기도할 것이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막11:21~24)



소망의 열도와 기도의 응답은 정비레한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간 교회는 작지만 참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 대부분이 기도를 할 때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궁금해서 물어보니 방언기도라는 것이었습니다. 방언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꼭 방언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나도 방언이라는 것을 받고 싶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저도 듣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서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근하기가 무섭게 교회로 달려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방언을 주세요. 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적이라잖아요. 나도 주세요." 하며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며칠이나 지났을까, 갑자기 제 입에서 "더더더더" 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기도에 동참했던 성도들은 '이 사장님이 드디어 방언 받았다.'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한 번 맛을 봤으니, 이제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겠다' 생각하고는 아예 교회 성가대 장의자에서 자리를 펴고 밤을 새우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방언도 주셨으니 하나님 음성도 들려주세요." 하며 목청이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손발은 묶여도 기도는 묶이지 않는다

어느 날, 장의자에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천둥 치는 소리처럼 큰 소리로 "고린도전서 14장 17절을 보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깰했습니다. "이게 뭐지?" 잠시 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치 어린 사무엘이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몰랐던 것처럼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아! 이거구나.' 하고는 얼른 성경을 펼더니, 거기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소망이 너무 큰 나머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폐가 되었나 봅니다. 자상하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줄 테니 좀 살살해라.' 그러신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저는 소망하던 일을 모두 이뤄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저는 '소망의 열도는 기도의 응답과 정비레한다'는 공식을 하나 배웠습니다. 화력이 세면 물이 금방 끓어오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아시죠?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그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물어물어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했습니다. 간구(懇求)가 뭐니까? 소원하는 것을 이뤄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막7:27).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막7:28).

딸을 고치고자 말겠다는 소망과 의지가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을 만큼 강했던 것입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

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막7:29)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을 통해 소망의 열도를 체크하시고 합격시키신 것입니다. 매일 재판관을 찾아간 한 과부 이야기(눅18:1~8)며, 여행 중에 찾아온 벼를 위하여 떡을 얻고야 말겠다는 어떤 친구 이야기(눅11:5~8)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11차에 걸쳐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하냐고요? 왜 계속 하냐고요? 그건 평화통일이 우리의 소원임을,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아주 뜨거움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한다고 평화통일이 되겠어? 지금 북한을 봐봐. 전쟁이나 안 나면 다행이지."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통일에 대한 소망도 없을뿐더러 믿음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4)고 하셨습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에 다가갔으나 열매가 하나도 없자 무화과나무를 보시고는 저주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그냥 그러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어제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뿌리까지 다 말라 죽어있지 뭐니까. 그제야 제자들이 깜짝 놀라자 예수님은 왜 때가 되지 않은 나무를 저주하셨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

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며 그

고서도 산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시에서 나와서 온갖 장비로 산을 깎아 바다를 메우고 있어요." 목사님은 새신자 앞에서 "당연하지. 하나님을 믿으면 다 되는 거야." 했지만, 밤에 울면서 "하나님, 제가 새신자보다 믿음이 없습니다."라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기도한 것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평화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소망의 열도를 재고 계십니다. 뜨겁나, 식었나 체크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통일을 이루는 날까지 이 기도성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로마서 4장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롬4:19~22)고 말씀합니다. 백세가 된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義)로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의심치 않고 믿는 것이 의로운 일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업을 위해, 교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기도한 것을 의심치 않고 믿을 때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사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아니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내 맘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불의(不義)요, 불신(不信)입니다. 그런 자에게 야고보는 단호히 경고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약1:6~8). 아들을 갖고 싶은 한나의 소망이 태의 문을 닫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스승인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얻겠다는 엘리야의 간절한 소망이 마침내 청출어람(靑出於藍)을 이뤘습니다. 가랑이 사이로 얼굴을 파문을 만큼 간절한 엘리야의 기도가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을 열고 단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제11차 평화통일 집회를 마치고

똑딱똑딱, 땡그렁 땡그렁 땡그렁 땡그렁...
집회를 마치고 바로 교회 일꾼들이 달려 들어 철거하는 소리다. 주님 은혜로 집회를 잘 마치고 철거하는 손길들이 설치할 때보다 훨씬 즐거워 보이고 가벼워 보인다. 내 마음이 그래서일까.
갑자기 허락하신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각기 맡은 자리에서 열심을 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멋지다. 마치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시에 따라 지파별로 일사불란하게 성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또는 이동하는 모습을 보는 듯하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누구 하나 불평의 소리나 불멘소리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모두가 자기 일인 양 자기 자리에서 동분서주 뛰는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리라.
처음 오신 어르신들이 어찌면 그렇게 말씀을 잘 들었는지... 어느 장로님에게 예배 후에 참 신기하다고 말했더니, 그 장로님 말씀이 “목사님, 늘 오시는 단골손님이시라 모두 예배에 익숙하세요.”라고 말한다. 참 복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그 복이 복인 줄 모르시고 다니실까봐 그게 아쉽다.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

서울예수중심교회 이시대 목사

:: 평화통일 집회를 마치고 ::

누가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할까?

유럽의 멋진 교회들이 박물관, 서커스 연습장, 카페, 이슬람사원, 심지어는 나이트 클럽으로 바뀐다고 한다.
한국 교회도 코로나를 거치며 30%의 교인이 줄고, 문 닫은 교회가 1만 교회라고 하지만, 이초석 목사님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시고 11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단열을 앞두고 선포하셨다. 공휴일도 아니고 평일 저녁에 하신다니 5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를 가야 하는 마산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다. ‘학교 가고, 직장가는데 먼 지방이니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생각하는데 목사님께서 기도원에서 열정을 불태우시고 지친 모습이 떠올랐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부족하지만 몸부림쳐보았다.
집회를 통해 어느 타 교단 권사님은 예배 중에 목사님의 손에 성령의 불이 타는 걸 목격하며 기뻐하시고, 새신자 자매는 불면증으로 고통당했는데 내려오며 치유했다는 간증을 차 안에서 하는데 ‘밤새 졸음운전 하다 사고 나면 안 되는데...’ 걱정하던 생각이 응답받은 넘치는 기쁨으로 변해 졸 틈도 없이 안전하게 귀가했다. 오는 내내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가지 못한 것이 후회로 남았다. ‘좀 더 강하게 독

려 합이니라”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 늘 보던 말씀인데, 오늘 목사님께서 깨닫고 전하신 다면서 하신 말씀이 마음속 깊이 밀려 들어왔다. 아하! 언제나 수장 머리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우선되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디서나 수장의 생각에 의해 그 단체가 이끌려 가기 때문인 것이다.
교회는 목사가, 가정은 가장이, 기업은 회장이, 나라는 대통령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깊이 새겼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평화통일을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날의 대통령이 맞기 때문에 대통령을 위시한 내각 참모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나 더 깨달은 것은 ‘돈을 내놓으면 물건 준다는 것은 믿고, 카톡 보내면 간다는 것 믿으면서 왜 내가 기도한 것을 믿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데.’라는 말씀이다. 기도한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먼 지방에서 제주도에서도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서울예수중심교회 이시대 목사

려할 걸..., 더 전도해서 모시고 갈 걸...,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괜한 걱정으로 더 열심을 못 냈어.’ 하루 지나고 나니 연락이 왔다. “문자를 늦게 봐서. 전화를 주셨으면 갔을 텐데요...” 다음을 기약하며 아쉬운 대화를 마쳤다.
목사님이 나이 드시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분의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서글펐다. 목사님 계실 때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진다.
기독교가 쇠퇴한다고 핑계 대며 손 놓고 있을 이때, 이초석 목사님이 앞장서서 부흥의 횃불을 밝히고 계신다. 신천지집단에서는 건강하고 부자, 젊은이들에게만 접근하여 미혹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나 몰라라 하고 귀찮아하며 신경도 안 쓴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손 놓고 있는 귀신 들린 자,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예수님처럼 찾고 인도해야 하는 게 마지막 때 예수중심교단을 향한 뜻이라는 확신이 든다.
이제 청소년연합수련회, 하계산상집회에 영혼이라도 더 인도해서 주님의 속을, 목사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리라 다짐해본다. 할렐루야!

마산예수중심교회 최연식 목사

국가 위기에 봉화불을 당기자

평화의 청아한 종소리 올리누나
평화의 종소리 올리누나
새벽 교회당 종소리인양 올리누나

삼천리 금수강산에
종달새 봄노래 아지랑이 춤추며
목련꽃 피어나듯 올리누나 올리누나

평화의 종소리 남북에 올리누나
세계에 올리누나 평화의 종소리
만민이 박수치며 천사도 박수치누나

날짐승 우아한 군무
오케스트라 창공을 빛내고
평화의 종소리 노래하네

전쟁의 어두움 사라졌다 손뼉 치는 아낙네
딸 아들 품에 안고 단잠을 이루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늘과 바다, 산야가 주인을 부르니
남정네 아낙네 춤추며
주님 은혜 찬송함이
역사적 명작 이뤘네
평화의 비둘기가 날았다네

朋友

:: 평화통일 집회를 마치고 ::

여리고를 점령한 이들처럼!

6월 10일, 신학교 수업 1교시에 총회장 목사님께서 상기된 모습으로 들어오셔서 핸드볼경기장에서 집회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전화를 방금 받으셨다고 기뻐하셨다. 그리고 집회까지 12일밖에 남지 않아 이시대 목사님에게 ‘날짜가 촉박한데 괜찮겠느냐?’ 물었더니, 이시대 목사님께서 “명령만 내려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다며 더욱 기뻐하셨다.
집회가 선포된 날부터 우리 교회는 마치 최정에 군사들처럼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무장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낸 12일은 정말 훌쩍 지나갔다.
마침내 집회 당일,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어 목사님이 단에 서실 때는 자리가 부족하니 계단에 앉아달라는 양해의 말을 해야 할 정도였다. 나는 3층 제일 꼭대기에 앉게 되었는데, 수많은 영혼들로 넘친 집회 장소를 보며 지극히 작은 우리 교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2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대형집회를 배설하는 것은 많은 위험부담을 감수해

야 하는 일임에도 오직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여 단에서 선포하신 총회장 목사님과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고 죽도록 충성한 많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셨음에 감동했다. 그 모습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7일 만에 여리고를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해 12일 만에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점령한 우리 교단이 21세기 현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벅차올랐다.
집회 다음 날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장대비가 쏟아졌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집회 당일 절대 비가 오면 안 된다고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너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시는 듯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우리의 모든 헌신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평화통일을 이루시리라 확신한다. 집회 마지막에 목사님의 우리가 살아생전에 평화통일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도 응답되리라 나는 믿는다. 신학생 김별

:: 동행하는 삶 ::

:: 빛이 되리라 ::

응답의 경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 응답을 통해 내 믿음이 한층 성장함을 느낄 수 있다. 바로 그 원하던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응답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믿음의 말을 하며 지낸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면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서 믿음이 한층 성장한다.

얼마 전, 아이가 뛰어놀다가 발목을 다친 일이 있었다. 심하게 다쳐서 발목 인대가 파열되었고, 골절이 되어 김스를 2주하고 재활치료까지 해야 하며, 매주 병원에 다니며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였다. 아이는 김스를 하니 많이 불편해하였다. 김스를 한 채로 학교와 학원에 가야 하고, 좋아하는 자전거도 타지 못하고, 친구들과 뛰어놀지도 못하고, 혹여나 물이 들어갈까 씻기마저 힘들고.

가정예배를 드리며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아이는 발목이 전보다 더욱 건강해지기를 원한다고 했다. 가족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였고, 서울청·장년부 중보기도팀에서도 함께 기도해주었다. 아이도 2주 후에는 꼭 김스 풀 수 있기를, 재활치료 다니지 않기를, 발목이 더욱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시간이 지나 병원에 가니 다행스럽게도 김스를 풀고 대신 보호대를 채워주

었다. 그리고선 2주간 지내다가 다시 병원에 오라고 하였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 병원에 간 날, 엑스레이를 찍고 진료를 기다리며 아이와 함께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다.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데, 인대도 잘 아물었고 붓기도 많이 빠졌으니 재활치료는 하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셀프 재활운동을 알려줄 테니 열심히 하라고 하였다. 할렐루야!

아이와 진료실 밖으로 나와 손을 잡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백 번은 외친 것 같다.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아이에게 이야기했다. “유찬아, 유찬이가 간절히 기도하고 가족들이, 교회 분들이 기도해주셔서 이렇게 응답받은 거야.”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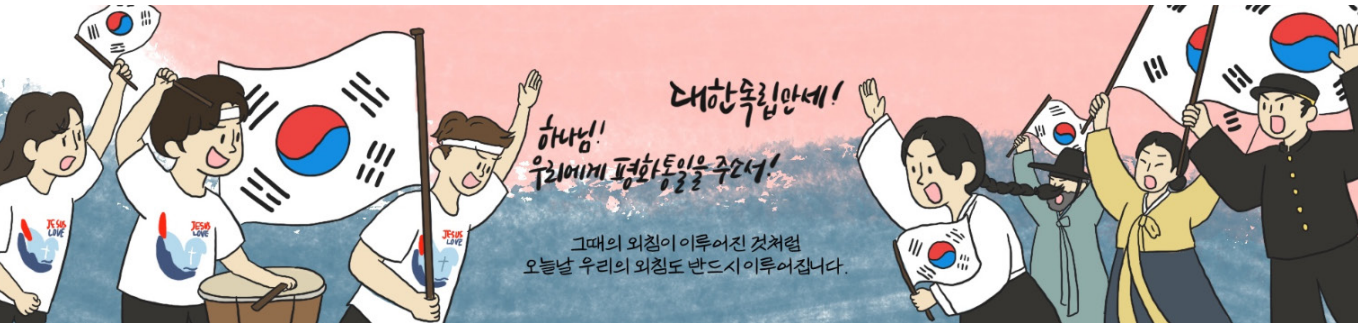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는 가끔 불안한 마음을 이야기했었다. 때로는 살짝 눈물도 보이면서 “발목이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조심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유찬이 발목을 더욱 건강하게 해주실 거야.”라고 말해주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험하게 놀지 않기, 늘 조심하기를 다짐해보자고 이야기했었다. 그런 아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응답해주셨다.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심하게 다쳐서 원래의

발목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던 의사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신 것이다.

그날 저녁 아이는 아빠에게 병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했다. 아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아이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며 “유찬아, 방에 들어가서 감사 기도하고 우리 교회 전화헌금하고 와.”라고 말했다. 아이가 혼자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와 전화헌금을 하고 나서 우리는 모두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쳤다. 우리 집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전화헌금을 하는데 아이도 그것을 보며 배우게 될 것이다.

보통 가정에 일이 생기면 아이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부모가 전전긍긍하며 기도하는데 이럴 때 함께 기도하면 아이들도 그 일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부모의 믿음을 본받을 것이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 재미와 유혹들이 참으로 많다. 아이들이 하나님께 가까이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부모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아이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겠다.

정효경 집사



:: 짧은 이야기 ::

죄란?

주일에배는 물론 수요일예배와 월요일예배도 빠지지 않고 다니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날도 월요일예배를 드리러 아빠도 일찍 퇴근하셨고, 온 가

족은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 앉서 아빠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을 먹고 다 같이 월요일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 집을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월요일예배를 위해 준비를 하던 아빠가 말합니다. “그럼 오늘 밤

에는 누가 남아 집을 지키지?”

죄가 무엇인 줄 압니까? 기도한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엄마에게 실컷 부탁해서 엄마가 다 준비해놓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같은 것을 다시 부탁해버린다면 엄마를 못 믿는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자기가 기도한 것을 자기가 믿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시겠습니까? 기도는 응답받고 하는 것입니다.

장명훈 집사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여기저기 아프면 담음(痰飲)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는 십병구담(十病九痰), 즉 ‘열 가지 병중에 아홉 가지는 담(痰) 때문이다’라고 할 만큼 담(痰)을 많은 병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痰)이란 몸 안의 진액이 두루 순환하지 않고 정체해서 발생한 비생리적 체액입니다. 어딘가 갑자기 아플 때 ‘담(痰)이 걸렸다’고 말을 하듯이, 담(痰)으로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등도 아픈데 아픈 곳이 일정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특징을 보입니다.

담(痰)이 잘 걸리는 유형은 소화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에 잘 발생합니다. 소화기에 담음(痰飲)이 있으면 속이 울렁거리고 구역감이 있고 어지럼증이 발생되기 쉽습니다. 생강이나 꿀꺽질차가 소화에 도움이 되고 담음(痰飲)의 배출을 돕습니다.

담(痰)이 심장 주변에 있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쉽게 놀라며 공포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백복령은 심장에 담음(痰飲)을 배출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담(痰)이 관절에 있으면 여기저기 아픈 데

가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이때는 비타민 섭취와 모과차도 도움이 되며 따뜻한 찜질이나 목욕, 운동을 통해서 담이 걸린 곳을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이 잘되면 담음(痰飲)이 배출이 될 수 있습니다. 비만도 담음(痰飲)을 쉽게 만드는 체질이므로, 식사량을 적절히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과 평소 율무차로 몸에 비정상적인 체액을 잘 배출하면 지방과 함께 몸의 담음(痰飲)도 함께 배출이 되기에, 사전에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Dr. 설재현 집사

